

2. Embracing Our Differences

Opposite Personalities, Great Partnerships

Everybody ¹⁾[is/are] unique. However, there ²⁾[has/have] been many attempts to categorize people's ³⁾[personality/personalities]. One of the most common methods ⁴⁾[divides/divide] people into two types, introverts and extroverts. ⁵⁾[According/Accorded] to this division, introverts tend to ⁶⁾[draw/be drawn] to the internal world of thoughts and feelings, while extroverts are drawn to the external world of people and activities. Introverts recharge their batteries ⁷⁾[by/with] spending some time alone; extroverts need to recharge when they do not socialize enough.

Extroverts are good at performing tasks under ⁸⁾[pressure/pleasure] and ⁹⁾[copes/coping] with multiple jobs at once. Introverts, on the other ¹⁰⁾[hand/hands], like to focus on one task at a time and can concentrate very ¹¹⁾[well/good]. Extroverts tend to do assignments quickly. They make fast decisions and are comfortable ¹²⁾[with/at] taking risks. Introverts ¹³⁾[often work/work often] more slowly and deliberately. They think before they act, give up ¹⁴⁾[less/more] easily, and work more ¹⁵⁾[accurate/accurately].

Based on all this ¹⁶⁾[informations/information], you might think ¹⁷⁾[that/what] introverts and extroverts do not get along. However, they actually work well together because their personalities ¹⁸⁾[complement/compliment] each other. Sometimes they can even ¹⁹⁾[accomplish/accompany] great things when they collaborate. Let's take a look at some famous examples!

반대의 성격, 훌륭한 협업

모든 사람은 특별하다. 하지만 사람들의 성격을 분류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어왔다. 가장 흔한 방법들 중 하나는 사람들을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두 종류로 나눈다. 이러한 분류에 따르면,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과 활동이라는 외부적인 세계에 끌리는 반면에 내성적인 사람들은 생각과 감정이라는 내면적인 세계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배터리를 재충전한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들이 충분히 사람들을 사귀지 못할 때 재충전을 할 필요가 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압박감 속에서 일을 수행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즐긴다. 반면에 내성적인 사람들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를 좋아하며 매우 잘 집중할 수 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업무를 빠르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빠른 결정을 내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것에 편안해한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종종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일을 한다. 그들은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덜 쉽게 포기하며, 더 정확하게 일을 한다.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당신은 내성적인 사람들과 외향적인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 잘 협력하는데, 그들의 성격들이 서로를 보완하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들은 심지어 협력할 때 훌륭한 일들을 성취해낼 수도 있다. 몇 가지의 유명한 사례들을 살펴보자!

Case One: Working Together for Civil ²⁰[Right/Rights]

²¹[In/On] December 1, 1955, in the American city of Montgomery, Alabama, a black woman ²²[naming/named] Rosa Parks got ²³[off/on] a bus. At that time in Montgomery, buses were divided into two zones: one for black people and ²⁴[the other/another] for white people. She took a seat in the black zone and watched quietly as more and more passengers got on the bus. Soon, all the ²⁵[seats/seat] in the white zone were ²⁶[taking/taken]. Then the driver ordered her ²⁷[to give/give] her seat to a white passenger. Rosa Parks was a shy, mild-mannered introvert. She avoided ²⁸[to stand/standing] out in public or ²⁹[drawing/to draw] attention to ³⁰[her/herself]. However, she had the courage to resist ³¹[justice/injustice], so she answered calmly with a single word—"No." The ³²[fabulous/furious] driver called the police, and she was arrested.

Parks's calm ³³[respond/response] to the situation impressed many people. Soon after, her quiet ³⁴[insistence/resistance] came together with the inspirational speechmaking of Martin Luther King Jr. When 5,000 people assembled at a rally to support Parks's act of ³⁵[courage/encourage], King made a speech to the crowd. He was an extrovert—³⁶[assertive/insulting], sociable, and good at motivating people. "There comes a time ³⁷[which/when] people get tired of ³⁸[being/to be] trampled," he told them. "There comes a time when people get tired of being ³⁹[pushing/pushed] out of the sunlight." King was an amazing speaker, and his words filled the people with pride and hope. He then praised Parks's ⁴⁰[brave/bravery] and hugged her. She stood ⁴¹[silent/silently]. Her mere ⁴²[presence/present] was enough to strengthen the crowd.

사례 1: 시민권을 위해 협력하다

1955년 12월 1일, 미국 Alabama 주의 Montgomery라는 도시에서 Rosa Parks라는 이름을 가진 한 흑인 여성이 버스에 올라탔다. 그 당시 Montgomery에서는 버스가 흑인을 위한 곳과 백인을 위한 곳 두 구역으로 나뉘어있었다. 그녀는 흑인 구역의 좌석에 앉았고 점점 더 많은 승객들이 버스에 타는 동안 조용히 지켜보았다. 곧, 백인 구역의 모든 좌석이 찼다. 그러자 기사는 그녀에게 백인 승객에게 자리를 양보하라고 명령했다. Rosa Parks는 수줍음이 많고 성격이 온순한 내성적인 사람이었다. 그녀는 대중 앞에서 눈에 띄거나 자신에게 관심을 끄는 것을 피했다. 하지만 그녀는 불의에 저항할 용기를 냈고, 조용히 한 단어로 대답했다. "싫어요." 화가 난 기사는 경찰을 불렀고, 그녀는 체포되었다.

그 상황에 대한 Parks의 차분한 대응은 많은 사람들을 감명시켰다. 곧 그녀의 조용한 저항은 Martin Luther King Jr.의 영감을 주는 연설로 이어졌다. 5,000명의 사람들이 Parks의 용기 있는 행동을 지지하기 위해 집회에 모였을 때, King은 군중에게 연설을 했다. 그는 적극적이고 사회적이며 사람들을 동기 부여 하는데 능한 외향적인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짓밟히는 것에 진저리가 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는 그들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햇빛으로부터 밀려나는 것에 진저리가 나는 순간이 옵니다." King은 놀라운 연설가였고, 그의 말은 사람들을 자긍심과 희망으로 채웠다. 그리고 나서 그는 Parks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다. 단지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군중에게 힘을 실어주기에 충분했다.

Rosa Parks's act and Martin Luther King Jr.'s speech inspired Montgomery's black community ⁴³[boycott/to boycott] the buses, a crucial turning point in the struggle for civil rights. The boycott lasted ⁴⁴[during/for] 381 days. It was a difficult time for everyone, but eventually the buses were integrated. Think about how the partnership of these two people accomplished this. A powerful speaker refusing ⁴⁵[giving/to give] up his seat on a bus would not ⁴⁶[have/have had] the same ⁴⁷[effort/effect]. Similarly, Rosa Parks could not ⁴⁸[excite/have excited] the crowd at the rally with her words. When their introverted and extroverted traits were ⁴⁹[combining/combined], however, his charisma attracted attention to her ⁵⁰[quite/quiet] bravery. In the end, this partnership had a huge impact on society.

Case Two: A Business Partnership

On June 29, 1975, Steve Wozniak tapped ⁵¹[few/a few] keys on his keyboard, and letters ⁵²[appeared/disappeared] on a screen. He ⁵³[has/had] just created a personal computer that allowed people ⁵⁴[to type/type] on a keyboard and see the results on a monitor simultaneously. At the sight of the brilliant ⁵⁵[device/devise], Steve Jobs suggested to Wozniak that they start a business.

Wozniak was a great inventor. When he partnered with Jobs, however, he was able to do ⁵⁶[very/much] more. In fact, the two men formed one of the most famous partnerships of the digital era. Wozniak ⁵⁷[would/will] come up with a clever engineering idea, and Jobs would find a way to polish, package, and sell it.

Rosa Parks의 행동과 Martin Luther King Jr.의 연설은 Montgomery의 흑인 공동체가 버스 이용을 거부하도록 격려했는데, 이는 시민권을 위한 투쟁의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불매 운동은 381일 동안 지속됐다.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지만 마침내 버스는 통합되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의 협력이 이것을 이뤄냈는지 생각해봐라. 자리를 양보하길 거부하는 강력한 연설가는 같은 효과를 갖지 않았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Rosa Parks는 집회에서 그녀의 말로는 군중을 흥분시키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내성적인 성향과 외향적인 성향이 결합되었을 때 King의 카리스마는 Rosa의 조용한 용기에 관심을 끌었다. 마침내 이러한 협력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

사례 2: 사업 동반자 관계

1975년 6월 29일, Steve Wozniak이 그의 키보드의 자판 몇 개를 두드리자, 글자들이 스크린에 나타났다. 그는 사람들이 키보드로 입력하는 동시에 결과를 모니터로 볼 수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막 만들어낸 참이었다. 이 멋진 장치를 보고, Steve Jobs는 Wozniak에게 그들이 함께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Wozniak은 훌륭한 발명가였다. 하지만 그가 Jobs와 협력했을 때, 그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었다. 사실, 두 사람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유명한 협력 중 하나를 형성했다. Wozniak은 기발한 공학 아이디어를 내놓곤 했고, Jobs는 그것을 다듬고 포장해 팔 방법을 찾아내곤 했다.

The two men had opposite personalities. Wozniak hated small talk and often worked ⁵⁸[lonely/alone]. It was these features of his introverted personality ⁵⁹[which/that] enabled him ⁶⁰[to focus/focus] on inventing things. Jobs, on the other hand, had ⁶¹[outstanding/outstood] social skills.


According to Wozniak, he was good at communicating with people. Wozniak was a shy inventor, whereas Jobs was a ⁶²[daring/dared] entrepreneur, but they were ⁶³[like/alike] in that ⁶⁴[both/neither] was afraid to face challenges that seemed ⁶⁵[impossibly/impossible].

So ⁶⁶[that/which] personality type is better? Obviously, the answer is ⁶⁷[neither/either]. The world needs both introverts ⁶⁸[or/and] extroverts, and they often make a ⁶⁹[terrific/terrible] team. We simply need to respect different personalities as ⁷⁰[well/good] as our own. Then, when we have a chance to work together, we might be able to do great things!

두 사람은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Wozniak은 한담을 싫어했고 종종 혼자 일했다. 그가 물건들을 발명하는 데에 집중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건 이러한 그의 내성적인 성격 특성이었다. 반면에, Jobs는 뛰어난 사교적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

Wozniak에 따르면 그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에 능했다고 한다. Jobs가 대담한 사업가인 반면, Wozniak은 수줍은 발명가였지만, 그들은 둘 다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직면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슷했다.

그래서 어떤 성격 유형이 더 좋은 것일까? 명백히, 정답은 둘 다 아니라는 것이다. 세상은 내성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 둘 다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그들은 종종 멋진 팀을 만들어낸다.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의 성격뿐만 아니라 다른 성격들도 존중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일할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시행령 제33조에 의한 표시

1) 제작연월일 : 2018년 11월 01일

2) 제작자 : 교육지대(주)

3)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외에도「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콘텐츠의 경우, 그 콘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것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외에도 저작권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답

- 1) [정답] is
- 2) [정답] have
- 3) [정답] personalities
- 4) [정답] divides
- 5) [정답] According
- 6) [정답] be drawn
- 7) [정답] by
- 8) [정답] pressure
- 9) [정답] coping
- 10) [정답] hand
- 11) [정답] well
- 12) [정답] with
- 13) [정답] often work
- 14) [정답] less
- 15) [정답] accurately
- 16) [정답] information
- 17) [정답] that
- 18) [정답] complement
- 19) [정답] accomplish
- 20) [정답] Rights
- 21) [정답] On
- 22) [정답] named
- 23) [정답] on
- 24) [정답] the other
- 25) [정답] seats

- 26) [정답] taken
- 27) [정답] to give
- 28) [정답] standing
- 29) [정답] drawing
- 30) [정답] herself
- 31) [정답] injustice
- 32) [정답] furious
- 33) [정답] response
- 34) [정답] resistance
- 35) [정답] courage
- 36) [정답] assertive
- 37) [정답] when
- 38) [정답] being
- 39) [정답] pushed
- 40) [정답] bravery
- 41) [정답] silently
- 42) [정답] presence
- 43) [정답] to boycott
- 44) [정답] for
- 45) [정답] to give
- 46) [정답] have had
- 47) [정답] effect
- 48) [정답] have excited
- 49) [정답] combined
- 50) [정답] quiet
- 51) [정답] a few
- 52) [정답] appeared
- 53) [정답] had
- 54) [정답] to type
- 55) [정답] device
- 56) [정답] much

- 57) [정답] would
58) [정답] alone
59) [정답] that
60) [정답] to focus
61) [정답] outstanding
62) [정답] daring
63) [정답] alike
64) [정답] neither
65) [정답] impossible
66) [정답] which
67) [정답] neither
68) [정답] and
69) [정답] terrific
70) [정답] well